

보도시점 2026. 8. 31.(월) 11:00
<9.1.(화) 조간>

배포 2026. 8. 31.(월)

산업기술 R&D 사업화 우대금융 7,000억원 본격 공급 개시

- 산업부 R&D 과제 우수 수행기업에 정책보증과 대출 패키지 지원
- 3년간('26~'28) 기보 4,050억원, 무보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지원
- IBK기업은행 270억원, 하나은행 200억원 특별출연으로 마중물 조성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과제 성과의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총 7,050억원 규모의 「산업R&D 혁신기업 우대 패키지 금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우수 또는 완료 등급으로 수행한 기업 중 R&D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R&D 후속 실증·양산 및 수출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기술 R&D 전담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은 함께 470억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 출연하였으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맞춤형 보증상품을 기획하여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기보는 향후 3년간 총 4,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로 기술력과 신용도를 평가하여 보증을 제공하던 기존 기술보증과 달리, 프로젝트 사업화 보증은 R&D 과제 성과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술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 용자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은 산업R&D 과제 성과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50억

원(시설자금 포함시 최대 1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우대(최대 0.5%p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보는 총 3,000억원 규모의 ‘R&D 혁신기업 수출입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R&D 완료 기업은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 준비를 위한 운전·제작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등의 대출을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 20%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 및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등에는 최대 2.5배의 파격적인 특별 한도를 부여한다.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은 “시중은행, 정책보증기관, 그리고 R&D 전문기관 모두의 긴밀한 협업으로 마련된 7,050억원 규모의 대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산업기술 R&D 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R&D 성과가 기술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 매출과 수출, 일자리 창출로 보다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촘촘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본 우대금융 상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R&D 기술금융플랫폼 홈페이지(<http://techfin.rcms.go.kr>)를 통해 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자격확인서를 지참하여 기보 또는 무보의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심사를 거쳐 제공된 우대보증을 바탕으로 협약은행인 하나은행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과	책임자	과 장	장미연 (044-203-4530)
		담당자	서기관	조은형 (044-203-4531)